



국토연구원 주최 '혁신도시 개발전략 국제 세미나'

첨단기술의 고부가가치산업을 통해 경쟁력 키워야

지난 6월 중순 국토연구원 주최로 '혁신도시 개발전략 국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정부가 혁신도시 개발전략을 위한 외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정부 유관 기관과 학계, 업계에서 깊은 관심을 보였다. 미국, 스웨덴, 말레이시아의 혁신도시 개발 사례를 발표해 더욱 관심을 모았던 국제 세미나를 다녀왔다. 에디터 김소진 사진 이충규

지난 6월 20~21일 이틀 동안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 볼룸과 국토연구원에서 해외의 도시 전문가와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개발전략 국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가 후원했으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장과 건설교통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 10개 혁신도시의 기본 구상안을 7월 중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해외 선진 도시의 개발전략과 성공 요인 등 해외의 주요 도시 개발 사례를 참고하고 해외 석학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혁신도시 개발을 위해 정부는 9월까지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2007년 개발 및 실시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 발표는 지역 혁신과 공공정책 분야의 전문가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마이클 루거 교수, 한국산업기술대학원 박상철 교수, 로버트 맥마한 노스캐롤라이나주 과학기술부 사무총장, 닥트 카시 말레이시아 사이버자아 개발이사 등이 했다. 혁신도시 개발 사례로 미국의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850만 평),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와 사이버자아(2300만 평), 스웨덴 시스타(66만 평) 등이 거론됐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동부의 실리콘밸리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RTP)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과학기술위원회의 로버트 맥마한 사무총장은 2005년 <포브스>지가 극찬한 미국 동부의 실리콘밸리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 개발 사례를 발표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중부에 위치한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혁신 클러스트로, 랄레이(Raleigh)-더럼(Durham)-채플힐(Chapel Hill) 중심부에 첨단기술 복합 기능을 접목시킨 동부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린다.

2004년 미국에서 가장 기업가적인 도시로 선정되기도 한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는 지역 내 대학을 졸업한 유능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연구개발 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59년 대학교수와 부동산 개발업자, 주지사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성됐다.

맥마한 총장은 지역 내 대학과 지방정부, 민간기업 등 지역사회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협조 체계 구축이 혁신도시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또한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는 개발을 시작해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대략 30여 년 정도가 소요되며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단기간의 성과보다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일관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시스타, 신도시 개발에서 유럽 첨단 정보통신의 메카로 한국산업기술대학원 박상철 교수는 유럽의 첨단 정보통신의 메카로 성장한 시스타의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 1970년대 초 스웨덴 스톡홀름시의 인구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중심부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총 66만 평의 시스타 신도시 개발 계획이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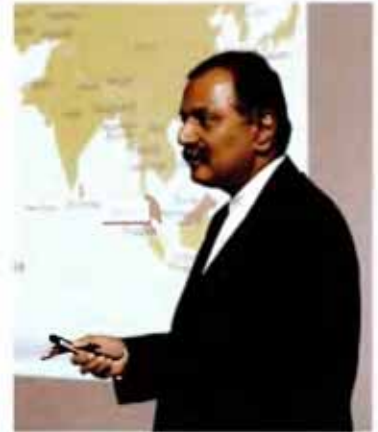
2002년 독일 컨설팅 기업인 옐퍼리카 델라사세사가 분석한 유럽 내 214개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산업역동성 분석 순위에서 스톡홀름시의 시스타 지역이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선정됐다.

시스타의 성공 요인은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 제공, 주거환경 개선, IT산업 인프라 구축 등 관리자의 입장이 아닌 순수한 서비스 제공자 또는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박상철 교수는 전했다. 이어서 박 교수는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들간의 역할 분담과 최적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과 단순한 단지 조성이 아닌 지역의 복합적인 환경을 분석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혁신지역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말레이시아의 신행정수도 푸트라자야, 첨단정보기술도시 사이버자야 사이버자야 개발 회사의 다득 카시(Datuk Kasi) 이사는 신행정수도와 첨단정보기술도시로 알려진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와 사이버자야 개발 사례를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1980년대 이후 농업 기반 경제에서 산업화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1991년 공식적으로 '비전 2020'이라는 국가의 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이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는 신행정수도 푸트라자야와 첨단정보기술도시 사이버자야 개발을 추진했다.

사이버자야에는 최첨단 수준의 소방·치안·방재 시설을 비롯해 세팡 공항(연간 여객처리능력 2540만 명)과 총 연장 830km에 달하는 고속도로 등 동남아 최고 수준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사이버자야에는 16개 국립대학과 5개의 사립대학, 12개의 기술전문대학과 4개의 국제대학 캠퍼스가 있으며, 60여 개가 넘는 사립전문대학이 세워졌다.

카시 이사는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비전과 산·학·연 유치를 위한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민간 기업이 고등교육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다득 카시 말레이시아 사이버자야 개발이사



로버트 맥마한 노스캐롤라이나주 과학기술부 사무총장



한국산업기술대학원 박상철 교수